

■ 센터소장 인사말

새로운 시대 앞에 선 한반도 그리고 연세의료원의 사명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 평화, 그리고 번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남북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 연세의료원의 책임은 매우 큼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내용들이 향후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에 중요한 방향들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통일보건의료센터도 의대, 치대, 간호대, 약대, 보건대학원 및 모든 병원의 교직원 분들,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과 힘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과대학 인문사회이학교실에 <통일 및 국제의료> division 이 만들어졌습니다.

의과대학에는 새로 <인문사회이학교실>이 창설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의사학과, 의료법윤리학과와 함께, <통일 및 국제의료> division 이 신설되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원의 통일보건의료센터가 활동기구라면, 인문사회이학교실의 <통일 및 국제의료> division 은 관련 연구와 교육, 인력 양성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세의료원은 통일의 영역에 있어, 이 두 개의 기구를 양쪽 날개로 하여 최고의 활동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17일 오후 3시부터 예비슨의생명연구센터(ABMRC) 유일한 홀에서 있을 인문사회이학교실 창설 기념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차례

■ 센터 소장 인사말

■ 세브란스 통일가족 인터뷰 - 세브란스병원 손은선 약무국장

■ 제 30회 통일보건의료세미나 리뷰 -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와 지원현황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 통일마당 기고 - 의과대학 통일보건의료 특성화과정 참여 후기 (김정민 본과 3학년 학생)

■ 통일보건의료센터 공지사항

■ 기타 · 광고

연세통일기부금 모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연세의료원은 2015년 9월 북한 어린이 돕기 수액 모금을 위한 연세통일기부금 모금을 하였습니다. 단 3 주간의 모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2,247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셨고 그에 따라 총 113,354,000원이 약정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분들은 2년 약정으로 기부 약속을 해 주셨고, 지난 2년 간 모든 참여자 분들께서 성실하게 기부 이행을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액수의 모금이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2년 넘게 약정하여 주신 분들의 기부는 감사하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부들에 힘입어, 연세의료원은 2015년 말,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수액을 북한에 보낸 바 있으며, 기부하신 금액은 현재 조선일보사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통일과 나눔> 재단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앞으로 북한의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이 있게 되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예정이며, 그 자세한 내역은 다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 동안 연세통일기부금 모금에 동참하여 주셨던 모든 기부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이 한반도에 건강공동체를 가지고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큰 활동"들이 필요하게 될 때,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상황을 설명 드리고, 다시 적극적인 관심과 기부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때 연세의료원의 가족들 힘이 다시 한 번 크게 펼쳐지기 바랍니다.

연세의료원의 역사적 사명을 생각합니다.

세계 4대 강국들 사이에서 끼어 있는 우리 민족에게 분단은 너무도 큰 그늘과 아픔을 드리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우리 민족의 안전과 번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세의료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민족을 위하여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독립선언문 인쇄를 담당하고 배포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던 그 세브란스의 정신과 역사가 다시 필요로 되는 시점에 우리는 들어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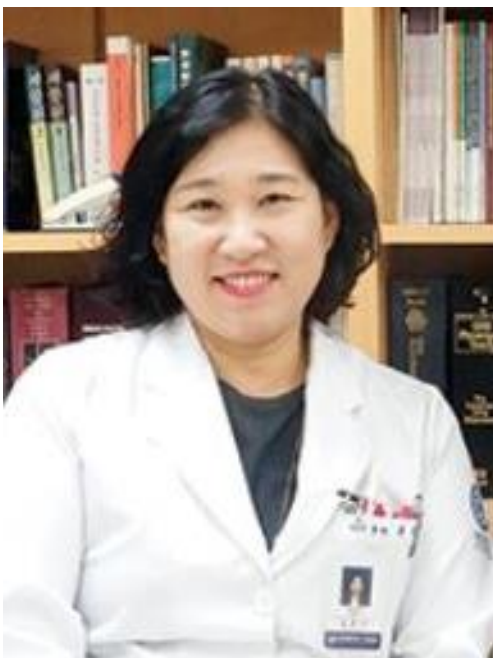
이 역사적 사명을 연세의료원이 잘 담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전우택 올림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손은선 국장

[편집자 주] 통일보건의료센터가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브란스병원의 부서가 있다. 그 주축에 바로 손은선 약무국장이 있다. 새 봄의 희망찬 기운을 닮아 언제나 밝고 활기차고 열정적인 세브란스병원 손은선 국장을 찾았다. 그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꼭 필요한,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약무국의 수장이자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직을 비롯하여 정부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위원회, 한국병원약사회 임원직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런 바쁜 활동 중에도 “통일”에 대해 아낌없이 열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녀가 궁금했다.

1. 통일보건의료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 주최하는 치의학 기획단 발대식에서 북한 출신 약사가 강연한다는 소식을 접해서 참석했던 것이 통일보건의료분야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약사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보건 의료계에 속한 약사로서 분단된 이 나라, 이 시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역할과 다가올 미래사회의 약사 역할에 대해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통일 세미나를 통해, 약학 쪽에서도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참여하기 시작했죠.

2. 센터가 2015년 9월 진행한 통일수액프로젝트에 약무국 전원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센터 세미나나 통일의 밤 행사에 약사분들, 그리고 약학기획단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한데 비결이 있을까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동안 제가 통일보건의료센터 세미나 등을 통해 들었던 강연이나 참여했던 행사에 대해 공유해 왔는데 제 얘기를 듣고 공감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어요. 특히 통일수액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수액’이라는 주제가 약무국 직원들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손은선 국장

북한 출신 이해경 약사의 강의에서 보았던 빈 맥주병에 담아서 아이들을 치료하던 모습은 약학 전문가인 우리 약사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사진이었어요. 빈 맥주병에 완전멸균 상태가 아닌 수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오히려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약대학장님께 약학기획단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더니 약대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행정실 교직원 선생님 모두가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뿐 아니라 멀리 송도에서부터 통일 관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달려와 주셨죠. 약학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약사인 우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공감한 학생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기꺼이 참여한 거죠. 결국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물음표를 던져주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적극적인 통로를 만들어 함께 동참한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 아닐까요.

3. 통일보건의료센터 약학기획단 발대식을 통해서 약무국이 그 동안 통일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약사회 차원의 단계적 통일 준비 계획 정책 제안' 을 대한약사회에서 발표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북한 주민들을 돕는 활동에 부서원 전체가 기부하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상당히 통일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에 기여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예요. 여전히 잘 모르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다만, 감사하게도 제가 파편적으로 들고 있던 퍼즐조각들을 통일이라는 판에서 하나씩 하나씩 맞추다 보니 조각들이 이어져 하나의 그림이 완성 되더군요. 그리고 제3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기념 미래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통일준비를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 김재송 파트장이 해당 주제로 참여했고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북한주민 돕기는 세브란스병원 NCSI 1등 기념으로 부서원 기부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 때 실행한 것입니다. 조각이 비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채워볼까 고민 하던 차에 신기하게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련의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어요.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손은선 국장

4. 연구 활동도 진행해 보시고 북한 출산의 약사, 의사 분들과 많은 말씀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 통일을 대비해서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하나의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시급히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북한 의사, 약사들이 한국에서 트레이닝 받으면서 부딪히는 첫 장벽이 용어나 표현의 차이로 생기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용어 표준화, 표현의 차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5. 마지막으로 그 간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세미나, 교육, 학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느낀 점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시대의 과제에 동참하는 '약사'가 필요하다고 고민하던 찰나에 우리 의료원의 통일보건의료 센터와 세미나를 알게 되었고, 북한 음식 맛보기, DMZ 방문, 오준 대사님 특강 및 대화, 북한 영화보기, 통일보건의료학회 등에 함께 참여하면서 제가 미처 관심을 두지 않았던 '통일'과 '북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과정 중 여러 방면으로 북한의 생명을 살리는 기회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기에 공감하고 함께해 주는 약무국 동료 및 약대 교수님과 약대생들이 있었죠. 이 모든 과정과 환경에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먼 나라 얘기 같을 테지만, 그러나 한번 알고 나면 기꺼이 공감하고 동참하게 될 내 나라 내 민족의 '통일'과 '북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바로 우리 옆의 통일보건의료센터를 통해서 접할 기회가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북한 이탈주민 정착실태와 지원현황

—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 입국, 북한 병사의 귀순 과 같은 뉴스들은 반짝이는 뉴스거리가 된다. 그들이 탈북과 입국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사람들이며 기반이 없는 한국 땅에서 어떻게 정착해 가는가에 대한 고민은 대부분 관심 밖이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활동하는 공공기관이다. 지난 3월 27일 통일보건의료센터는 남북하나재단의 고경빈 이사장을 모시고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실태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 및 현황에 대해 들었다.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지난 20년 간 연 평균 1000명, 월 100명 이상

고경빈 이사장은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 통계를 말하는 것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이들의 입국 목적의 변화, 연령 및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 한국에서 주거환경, 경제활동 내용 등과 같은 정착실태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어떤 주관적, 객관적 어려움을 겪는지 전한 후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과 이를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의 활동들, 효과를 소개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실태와 지원현황

—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 날 세미나에는 김호성 어린이병원장을 비롯하여 각 단과대학의 교수, 재학생 등이 참석하여 세미나를 경청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도 통일부, 하나원을 거쳐 남북하나재단에서 활동하며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일에 오랜 기간 종사해온 고경빈 이사장에게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 북한 청소년들의 보건의료, 탈북민에 대한 교육 내용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



[강사 소개]

고 경 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경력)

2017 ~ 현재 :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2009 ~ 2017 : (재) 평화재단 이사

2012 ~ 2013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2008 ~ 2009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하나원)

2007 ~ 2008 :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2006 ~ 2007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2004 ~ 2006 :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2004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하나원)

의과대학 통일보건의료 특성화과정 학생

— 김정민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중학교 3학년 이던 2003년, 교육청 주관의 금강산 견학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금강산에 갔던 적이 있다. 이 전까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아픔 같은 것은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버스를 타고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지나 북한에 진입하던 순간의 감격을 기억하며 북한에 관심이 생겼었지만 바쁜 학업생활로 점차 관심은 사라졌다.

의과대학 진학 후 본과 3학년 때 전우택 교수님의 북한에 대한 강의를 접하며 금강산에 다녀왔던 기억과 함께 관심이 다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마침 본과 4학년 특성화 과정 활동을 고민을 하던 중,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 특성화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우택 교수님께 연락 드려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성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2월 한 달간 진행되었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의학저널에 대한 분석 논문 작성과 북한관련 책을 읽고 난 뒤의 토론이다.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만남을 위해 전우택 교수님께서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이하 '새조위')의 신미녀 대표님을 소개해 주셨다. 종로에 있는 새조위 사무실에서 신미녀 대표님을 만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겪는 고통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등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슈들을 접할 수 있었다.

서울의료원과 국립의료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치료 상담 과정을 지원하는 봉사활동도 했는데 이 때 북한이탈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면서 북한이탈주민 상담센터의 상담원으로 계신 분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 통일보건의료 특성화과정 학생

— 김정민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한 예로 북한이탈주민은 남녀 성비가 2:8 정도로 여성이 더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은 인신매매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는 '제3자'라고 표현하며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아이와 함께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이들이 겪는 실질적 문제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사회가 인지하고 제도적인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 활동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북한의학저널에 대한 분석 논문을 작성했다. 북한의 의학저널은 대략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 7개 정도의 저널은 북한에서도 많이 읽혀지는 의학저널이다. 내과, 조선의학, 예방의학, 소아산부인과학, 고려의학, 외과, 의학이 그것이다. 각각의 논문에서 신경정신과학적인 저널만 모아 흐름이 어떻게 변하였고,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지 분석하는 논문을 썼다.



사진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이 특성화과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국립중앙도서관안에 '북한자료센터'가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북한자료센터는 통일부에서 관리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위치해 있다. 대출은 불가능하고 열람만 가능한데 북한에서 발행되는 여러 종류의 잡지와 신문, 책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북한 책들을 본 것은 처음이라 굉장히 신기했다.

의과대학 통일보건의료 특성화과정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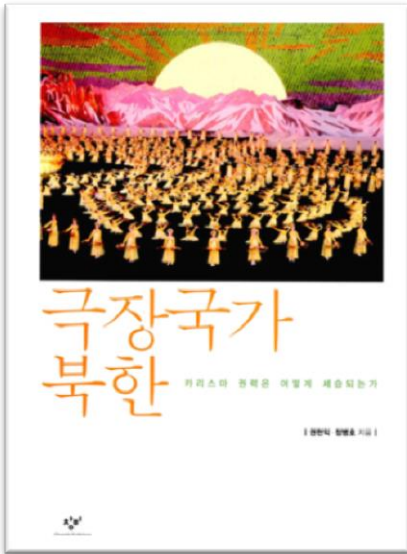
— 김정민 의과대학 본과 3학년



논문작성과 더불어 북한관련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읽은 책은 《장마당과 선군정치》와 《극장국가 북한》이었다. 《장마당과 선군정치》는 북한의 장마당 형성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낸 책으로, 북한의 현실을 짜임새 있게 설명한다. 《극장국가 북한》은 북한을 두고 '극장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으로 북한을 분석하는 흥미로운 책이었다. 2권의 책을 읽고 나서 더욱 더 북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책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며, 북한의학저널들을 통해 북한 보건의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 다시 관심이 커진 만큼, 북한에 대한 공부를 틈틈이 할 계획이다. 특히 통일이 되었을 때,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상되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는 만큼 이에 대한 공부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 볼 생각이다.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해주신 전우택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통일보건의료센터 공지사항

○ 센터 산하 조직 개편 및 각 조직기구 부장 임명

조직	직책	성명 및 소속
사무국	사무국장	김소윤 의과대학 인문사회이학교실 교수
기획연구부	기획연구부장	정진현 약학대학 약학과 교수
교육홍보부	교육홍보부장	추상희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대외협력부	대외협력부장	이재훈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교수
대북보건의료지원단	대북보건의료지원단장	김원호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 신규 운영위원 임명

나균호 비뇨의학교실 교수 / 미래전략부실장

기타·광고

통일보건의료학회 관련 소식

○ 통일보건의료준비(가칭) 서적 발간 추진

개요	통일보건의료학회는 각 대학의 전문 식견과 지식을 겸비한 교수진 및 연구원들과 함께 통일보건의료의 준비 및 제안을 위한 옴니버스 형식의 학술 서적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	---

○ 연구비 지원사업의 연구결과

제목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 지표 구축 연구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석향 이화여자대학 교수 공동연구원 - 강민아 이화여자대학 교수, 김신곤 고려대학 교수, 배그린 이화여자 대학 교수 연구보조원 - 박민주, 김미주
내용	- 보건의료체계 분석을 위한 고찰 -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기초 분석 -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지수 구축을 위한 논의

○ 통일보건의료학회 2018 춘계 학술대회

날짜	2018.06.15
주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이해
내용	- 남북한 질병관, 진료경험 및 치료경험 비교 - 남북한 의료인 및 의료대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통일보건의료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TEL 02-2228-0997 ✉ E-mail uni-health@yuhs.ac

🏠 http://www.yuhs.or.kr/mssn_realize/CHUK/intro/

📘 Facebook | www.facebook.com/ys.unihealth